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미국은 근현대 대한민국의 정치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광복 후 미군정하 교수요목기에는 미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한국의 학교교육에도 적용 하였으므로 교육도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한국교육사, 1993: p388). 때문에 이 시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미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가치관도 친미 성향이 두드러졌다(1982. 1. 13. 동아일보 여론조사).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정치적 지배, 간섭에 반대한 반미자주화운동과 1990년대에는 매향리 소음피해 소송이 일어났고, 이시기의 한국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제지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존경을 요구하며 반미감정을 갖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반미감정은 더 고조되었고 한국 내에서도 객관적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 정립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박소정, 1989: p.48; 정일화, 2004: 재인용).[1)]

반미 감정의 표출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선망을 나타내는 원정출산, 조기영어교육 열풍 등의 이중적인 세태를 보면 미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것은 WTO나 FTA등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와 뗄 수 없게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의 안보동맹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체결이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까지 포괄하는 역할을 해냄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 대해 인식할 때,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된 시각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청소년들이 미국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할

1) 2002년 8월 15일 MBC여론조사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존재인가?]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을 알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교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육이며 국가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그 공동체의 집단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교과이다.[2] 이런 면에서 볼 때 현 사회과의 정치교과서가 미국을 정치적인 파트너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회 전반적인 분야까지 균형있게 담고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는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내 미국관련 서술분석은 그 관련연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용국(원광대학교. 2005)과 정인웅(계명대학교. 2004)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몇몇 기존연구들은 사회과 심화 과정 중 근현대사가 새로 개설된 것에 중심을 두고, 미국관련 서술부분이 이전 역사교과서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밝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교과서 미국관련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역사교과에서만 연구가 활발하고 다른 사회과 교과서에는 관련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교과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매체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교과서를 그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국과 관련된 각 분야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빈도분석을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의 다른 나라 관련 내용은 그 나라 국민에게 있어서 외국관 형성의 바탕이 되며 이렇게 형성된 외국관은 미래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김자영, 2002: p.1). 한국에 있어서 미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미국관련 내용이 정치교과서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영역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비중 있게 서술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사고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정치교과서를 대상으로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주제이므로 보다 나은 교과서 편찬과 서술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고등학교 정치. 머리말. 지학사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미국관련 부분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 네 분야가 균형 있게 서술 되어있는지 빈도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대상을 제 7차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4종으로 채택한 이유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며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발행된 시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우호성이 하락하고 사회적으로 반미감정이 절정이었던 시대적 상황과 교과서 발행시점이 시기적으로 비슷함을 고려하여 교과서가 미국관련 부분을 다룰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골고루 다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국정제로만 발행되었던 사회교과서가 검인정제로 새로이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개편 후 미국에 관한 서술관련 내용 뿐 아니라 미국관련 삽화와 탐구활동 역시 증가 하여 미국관련 부분을 분석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관련 분야의 서술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제 7차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 전체에 나타난 미국관련 서술문장을 확인하고, 사실상 분석 가능한 서술문장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자료 서술유형의 비중은 어떠한가? 서술 상각 분야의 편향성은 없는가? 편향성이 나타난다면 어느 분야에 치우쳤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따른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정치교과서 4종에 나타난 미국관련 서술유형은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는가?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공통점이 나타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 '미국'관련 서술에 대한 분석을 교과서 내용분석 방법으로 할 것이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정치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서술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술내용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인데 이는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서술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비중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정치교육에서 정치 뿐 아닌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서술이 '왜 의미 있는 일인가?'를 밝힌다.

둘째, 한국 근대사에서의 미국의 영향을 파악하고, 미국이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를 점검한 후 미국에 대해 선행된 교과서연구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미국관련 서술유형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그 서술유형의 편중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 7차 검인정 4종의 정치교과서에 '미국' 관련된 단어가 속해있는 문장을 모두 찾아내어 분석한다.

넷째, 위의 정치교과서에서 미국관련 서술 영역별 비중도 분석을 통해 서술관련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 본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현행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교과인 정치교육과에 한하여 검인정 4종의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에서 나타난 미국관련 자료에 대한 서술부분만 분석이 이루어 졌으므로, 미국관련 삽화나 그 의도가 불분명하지 않는 표와 맥락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알린다.

셋째,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분석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루질 때, 관련 서술의 내용 분석은 연구자의 기존 미국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와 태도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제약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문헌을 검토해 보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정치교육에서 미국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의 미국에 관한 시각변화**, 둘째,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 미국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교육에서의 미국**, 셋째 교육에 있어서 특히 정치교육에서 미국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 졌는가에 관한 기초자료로서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 분석의 중요성**등 세 가지 유형이다.

1. 한미관계와 한국인의 대미 인식 변화

가. 한미관계의 변화

한미관계의 시작이 구한말부터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한미관계의 시작은 해방 후 남한에 미국이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일제 강점기에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한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 영국, 중국에 의해 국제적으로 독립을 보장받았고,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이 해방을 맞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항복시키고 전쟁을 연합국의 승리로 종전시킨데 힘입은 것이었다(임희섭, 1994). 독립을 되찾은 이후 1946년부터 1948년 까지 3년간 미군정기간을 거쳐 1948년 8월에 대한미국을 수립했다.

이 시기의 미국은 남한의 후견인으로서 대한미국 정부를 유엔이 승인하는 유일 합법 정부로 출범토록 하였고 신생 독립국인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 원조와 자문을 제공하였다. 또한 1949년 까지 5억 2백만 달러에 이르는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3년간의 미군정기간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근대국가의 전형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정치이념과 체제 및 제도들을 수용하여 미국적 민주주의 제도를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군정을 실시했던 미국이 철수 하고, 1950년 초에 한미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 같은 해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이 한국전에 파

병되면서 한미관계가 단순한 우방을 넘어 혈맹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3만 5천명의 전사자를 포함, 약 10만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 때 사용된 전쟁 비용은 400억 달러에 이르렀다(문화일보, 2002. 12. 31.). 한국전쟁은 1953년 7월에 휴전되었고,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된 후 이 조약에 따라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조약은 외부세력의 침략에 대한 공동 대응키로 한 한미 간의 약속이자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각종 안보, 군사 관련 후속협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3)]

1950년대의 미국 주둔은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의생활에서는 전통의상인 한복을 대신하여 양장을 하기 시작했으며, 차에서 커피로, 젊은이들은 주한 미군 방송을 통해 미국의 대중음악을 즐기게 되었으며 미국영화를 보고 그들의 행동양식을 즐기기에 이르렀다. 전통성이 점차 사라지고 생활양식까지 서구화 되어 가면서 기성세대들과의 괴리감이 생기게 되었고, 젊은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현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은 곧 미국 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전환점을 맞이한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에 착수 한 후 경제가 성장해 감에 따라 미국의 경제원조도 점차 감소하였고, 1965년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군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1971년에는 한미 연합군이 창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레이건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이 강화되었고, 1982년 처음으로 대미수출에서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는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1994년에는 미군이 가지고 있던 작전권 중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었으며 2000년대 현재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달로 지구촌 시대에 돌입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은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정보화,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세계패권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냉전구도에 있던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이들 국가 역시 자본주의 구도에 편입되면서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이런 미국의

3) 국정브리핑 (2007). 한미동맹은 변화 -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이의란은 미국경제지표 관련뉴스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이의란, 2006). 환율은 외국통화라는 금융자산의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뉴스뿐만 아니라 외국뉴스에도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국내외 뉴스, 특히 미국의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년 1년간 한국자금중개에서 이뤄진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해 서울 외환 시장의 원 달러 환율변동성과 한국, 미국의 경제지표 관련뉴스가 한국 경제에 관련성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미국과 한국의 경제지표 관련 뉴스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현변동성은 뉴스의 종류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의란 연구의 목적인 한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관련 뉴스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은 뉴스 하나에도 한국경제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들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또 한 번 큰 이슈를 맞이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FTA체결이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경기불황에 이르게 되는데 미국의 행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불공정 무역' 때문이라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상대국들에게 통상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WTO를 출범시키고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는데 미국과 몇몇 국가들의 농업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되면서 양자간 FTA로 방향을 선회한다. 무역적자를 줄이고 경제전반에 걸쳐 산업을 촉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 각국도 이에 뒤질세라 FTA체결을 통한 무역증대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모로 볼 때 미국의 7번째 무역파트너 이며, 미국의 경우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무역흑자국으로서 2005년 양국은 총 72달러의 교역을 하였다. 국내적으로 제조업의 매출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실업률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비하여 농업과 기타 피해예상 산업을 뒤로 하고 한미FTA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 FTA체결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을 이미 감행한 상태로,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게 있어 정치, 군사적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미FTA체결은 정치, 군사적 강화의 성격까지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진석, 2006: p11 재인용).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문화컨텐츠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식문화는 맥도날드와 코

카콜라가, 운동문화에서는 타이거 우즈, 애거시 그리고 할리우드의 영화는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이 된지 오래다. 특히 미국의 영화산업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면서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갔다. 디즈니사가 제작하는 만화영화와 헐리웃의 액션 영화 등은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 까지 세계인의 정서를 규정하고 대변하는 대표적인 장르가 되었다. 그러나 함재봉은 미국이 대중문화만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함재봉, 2000: pp52-68). 미국의 고급문화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학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양성, 배출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받는 지도자들은 미국의 가치와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고 미국의 대학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상과 이론, 이념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정치 뿐 아니라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분야에까지 미국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즉 우리 사회와 미국의 관계는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점점 중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 한국인의 대미 의식 변화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미국과 '영원한 동맹국가' 또는 단순한 친구관계 이상의 '피를 나눈 형제'로서 확고한 혈맹국으로 까지 표현되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승리함으로서 독립을 얻게 되고 3년간의 미군정기간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은인이자 후견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1950년 6월 25일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평화유지 목적으로 한국에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을 파병하였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해 주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반미의식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맹목적인 친미 감정으로 일관된 장면이 연출되었고, 이런 친미 감정은 박권상(김진웅, 1994: 재인용) 연구의 여론조사에 잘 나타난다.

1965년 5월 주한 미국 공보원이 서울 일원에서 500명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에 의하면 “어느 나라를 제일 좋아하느냐”라는 설문에 68%의 응답자들이 미국을 지적하였고, 미국이 싫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1%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8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 까지 전국적으로 20세 이상의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도, 60.6%의 응답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으며, 아무도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대답하지 않았다(김진웅, 1992: 재인용).

두 여론조사에서 1965년과 1981년은 15년의 시차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우호적인 감정은 별반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대다수의 한국인은 여전히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친미적 성향의 편중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대미의식은 1980년대 이후 변화되기 시작되었다. 1980년 광주항쟁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강력한 지원세력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사실은 군부독재정권을 지원 내지 방조했다는 의혹이 학생 운동권과 재야 지식인에 의해 제기되면서 한국인의 친미성향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또한 1992년에 발생된 윤금이씨 사건, 매향리 사격장 문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은 한국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6월에 발생한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은 반미감정을 시위와 촛불집회 등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나철희는 그의 연구에서 반미감정을 2002년에 한국 내에서 가장 증폭된 쟁점으로 보았다(나철희, 2003: p23).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종합 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KINDS(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이용한 검색결과, 종합일간지에서 반미 감정에 대해 다룬 기사의 수가 1999년부터 2001년 까지는 각각71개, 111개, 135개로 나타났으나 2002년에는 그 수가 무려 482개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2년 8월 15일 MBC여론조사[4]는 대미인식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95년 세

4) MBC여론조사(2002. 8.15).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종연구소에서 발표한 '95 국민의식조사'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MBC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존재" 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 81.2%가 "강력한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이라고 답해,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전통적인 우방국가"라고 응답한 16.8%를 답변을 압도했다. 이는 95년 세종연구소 조사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답한 국민이 76.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엄청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후 오늘 날에 이르기 까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처음에는 경제원조, 참전, 군정의 실시 같이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문화적 접촉 내지는 외교적 방식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간접적인 방식인 문화 접촉과 외교 등의 영향력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미국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 더 깊숙이 침투된다. 해방 후, 한국과 미국은 예전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까지 이젠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관련 부분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에 대한 의식변화가 2002년도에 최고조로 증폭되었다는 여러 자료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제 7차 사회과 정치교과서도 2002년도에 검인정제로 새롭게 개편됨을 인지하여 한국사회 내에서 들리는 미국에 대한 목소리를 학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인 교과서가 사회전반적인 분야를 편중적이지 않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현상과 괴리감 있는 교육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영역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균형 있는 기술은 꼭 필요하다.

2. 한국의 정치교육과 미국

가. 정치교육과 미국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일제가 패망하자 남한의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건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개혁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식민지 교육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와 해방된 조국에 맞는 새로운 교

육은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 가였다.(강일국, 2004: p107)

그러나 해방 즉시 이 땅을 미군정이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의 교육적 과제인 일제 교육청산과 민족교육 건설은 실종되고 일제 교육의 온존 위에 미국식 교육이 이 땅에 이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미군정 3년이 교육에서 시사 하는바는 한국의 정치, 경제적 구조가 대미종속 체제로 편입된 것처럼 미군정 3년은 오늘날까지 이 땅에 뿌리 내린 대미종속 교육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이 시기에 미군정은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선상에서 각축전을 버리게 되는데 그 지리적 위치가 한반도였다. 이데올로기적 전투에서는 교육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데올로기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논리에 따른 교육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신생독립국으로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교육보다는 미국의 지배에 친화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한국의 교육은 미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및 팽창을 위하여 정치, 군사, 기술, 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침투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설정하였고, 미군정으로 하여금 각 과목 및 수업을 통제하는 교수요목이란 이름하에 교과서의 개발, 발간, 배포 전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분야가 객관성을 띄고 있기 보다는 우호적 색채로 편향되어 서술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 제 7차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가 출판되기 전까지 국정교과서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도 일제 잔재의 교육내용을 없애기 보다는 그 위에 미국의 교과서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등 교과과정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그 예로 수신, 지리, 역사 과목을 통합하여 사회생활과로 통합하였고, 국어보다 영어를 확대배정 하여 오늘날까지 교육에서도 영어는 높은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사, 1993).

이는 한국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체적인 교육을 세우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주체성 있는 교육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고, 정재걸은 이제는 한국 교육학은 역사성, 총체성, 변혁 지향성을 추구해서 학문의 신식민성을 탈피해 한국 학문의 토착화나 창조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의 대미종속 교육이 의존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다(정재걸, 1998: p5).

결국 한국 교육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은 3년간의 미군정기간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가능했다.

다음에서는 실제 한국교과서에서 미국에 대한 편향성이 나타나는 지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 살펴보았다.

나. 교과서 내의 미국관련 서술연구

미국관련 분석은 정인웅, 이용국 등이 제7차 사회과 심화선택과목 교과서에서 나타난 미국관련 서술내용을 분석하고 있다(정인웅, 2004; 이용국, 2005).

정인웅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국사에서 독립된 교과목으로 근현대사 교과서를 선택하여 검토하였다. 검정제로 편찬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과, 6차 국사교과서, 7차 국사교과서 등에 서술된 미국관련 내용의 분석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적인 검정교과서의 수준은 기존 국정으로 발간된 6차 교과서 보다 교과서 서술시각의 객관성, 읽기자료와 사진자료 그리고 탐구자료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교육과정의 제약을 받아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반공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술내용이 여전히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정제 도입이라는 장점에서 미국에 관련된 역사서술의 해석과 다양성이 보장되었다고 보았고 이는 우리사회가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사회에서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 발전하였기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정인웅의 연구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미국관련 서술이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체계화 되었다는데 공헌이 있지만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분석하여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운 제약점이 드러났다.

이용국 역시 7차 교과서가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새로이 개편됨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가 개설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미국관련 서술부분을 국정제로 편찬되었던 6차 국사교과서와 7차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비교분석하였다. 미국관련 서술에 있어서 6차 국사교과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변화에 영향을 준 3가지 원

인인 ‘교과서 제도의 변화’, ‘한국사회의 대미인식변화’ 그리고 ‘근 현대사 교과서의 검정기준’을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서 이용국은 미국관련 서술부분을 5개로 제한하여 분석하는 내용분석 기법을 선택하였고, 교과서 서술부분에서도 반미감정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6차 교과서에 비해 근현대사 교과서는 외형적으로 책의 크기와 색상, 서술 분량 면에서 대폭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미국 비판이 늘어났음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으로 인해 6차 국사 교과서의 시각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 동안 국사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여 소홀시 되었던 근현대사 부분이 하나의 과목으로 신설되었다는 점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이전까지 학교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미국관련 서술이 다루어졌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이용국의 연구는 사회과 심화과정 교과서 중 기존 6차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근현대사 교과서가 신설되었다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미국관련 서술부분을 다 언급하지 않고 소주제를 5개만을 선택하여 분석한 것에 그쳤고, 같은 사회교과의 미국관련 분야 분석이긴 하나 무엇보다 본 연구자의 연구과목인 정치와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본인의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다. 정치교육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분석의 중요성.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의 이해와 탐구를 중심과제로 하는 사회과 교육 중에서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생활은 정치를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며 정치교육의 존재 양식에 따라 사회생활의 양상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송인국, 1984: p17).

조성규, 손병선의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시민의 양성, 민주적 인간형성을 학교 정치교육의 일반적 목표로 삼아왔으나 우리나라 정치가 보여 온 시행착오와 혼란과정에서 정치교육 또한 많은 변화와 혼란이 이야기 되어 왔고 체계 있는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하지 못했던 점을 비판하였다(조성규, 1999: pp43-64).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이 국가의 숨겨진 의도 하에 사회적 합의나 질서 등의 특정 내용만을 선택하여 강조하고, 현존하는 사회질서나 규범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현실변화를 촉진시키는 내용은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에 의문점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동시에 어떤 분야의 기능을 강조해야 함 보다는 앞으로 정치교과서의 정치교육내용은 시대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성규와 손병선의 연구는 정치교육은 단지 '정치체제의 안정과 유지'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치교육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현상들의 문제와 개인의 부적응 문제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적응기능을 강조하며 [균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기능을 주장하였다.

김홍수는 탈냉전시대의 도래로 정치교육도 정치, 안보교육에서 경제, 문화 전반으로 이동하였음을 주장하며 이념이 쇠퇴되고 물질과 경제 우선의 국제관계로 전환되면서 환경문제나 외교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사로 떠올랐으므로, 나아가 정치교육 과제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인간다운 삶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홍수, 1998).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치교육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치교육도 정치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회 전반적인 틀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존연구에 근거해서 볼 때, 현 대한민국의 정치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의식변화에 근거해 정치, 경제, 사회, 국제영역 등 전반적인 사회 제 문제에 균형성을 두어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성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중, 특히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 교육에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화 시대의 세계패권국이며,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나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치교과서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국제영역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지 연구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미국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도록 배우고 있는가를 유추에 볼 수 있는 논문이 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제 7차 교육과정 중, 사회과 심화과정 교과서에서 미국관련 분야가 분석되긴 하였으나 역사 교과서에만 치우쳐 있고 아직 사회과에서 그 관련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고등학교 사회교과 중 사회과

교육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정치교육에서 아직 연구되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미국관련 부분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미국에 관한 정치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할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부분의 비중이 균형있게 서술되어 있는가를 연구해 보고자한다. 따라서 본인의 연구는 학교교육에서 청소년들이 미국에 대해 가치관 정립을 할 때 어떻게 사고하도록 배우고 있는 가 유추해 보고자 한다.

Ⅲ. 정치교과서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사회과 심화과정인 정치교육 분야에서 미국에 대해 균형 있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상에 나타난 미국관련 서술 부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심화학습 과정인 정치교과서 4종의 미국관련 서술부분을 분석하고, 미국관련 서술내용이 현 사회 흐름에 의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외교 등 전반적인 분야에 균형성을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교과서'로 정한 이유는 학교의 교과서는 분명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도구이고, 교과서는 교사와 학교가 교육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과 교과서는 그 시대 기본방향 등을 잘 반영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이정균, 1988: p4). 그러므로 교과서의 내용 속에 반영된 가치는 학생들의 신념과 지식,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도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것으로 여기지기에 중요 자료로 선정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미국관련 서술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에 대해 편향성있는 기술이 아닌 균형있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에 의구심을 가졌고, 2000년을 기점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던 사회흐름과 맞물려 검정제 교과서가 편찬되면서 교과서의 변화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과 교과는 그 특성상 각 시대의 사회현상이 타 과목에 비해 많이 반영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영역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과의 정치교과서는 이런 사회현상들을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7년 교육부가 확정하고 고시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 사회영역에서 심화 선택과목으로 개발된 정치교과서 4종에 한정하였다. 분석은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내용 중에서 '미국'이란 단어가 포함된 서술부분을 분석할 것이다. 4종의 정치교과서는 알파벳 A, B, C, D 로 표기하였다. 연구자는 미국에 대한 서술과 관련되는 교과서 내용을 다루고자 하며, 구체적인 분석대상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정치교과서

구분기호	출판사	저자
A	(주) 지학사	이승종 외 4인
B	(주)법문사	김왕근 외 4인
C	대한교과서 (주)	강세중 외 5인
D	(주) 천재교육	최병모 외 5인

2. 분석준거

1) 미국관련 서술의 분석준거

우선 미국관련 서술 분야 4개의 영역 중 정치와 국제영역의 분석틀로 윤용탁,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치교육내용구조를 참조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윤용탁, 1983: pp166-173; 조광준, 1988: pp198-203).

윤용탁은 정치교육내용을 8개의 기본개념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부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다. 8개의 기본개념으로는 민주주의, 정치권력, 정치과정, 정치형태, 정치발전, 국제정치, 한국정치의 특수성, 법질서와 준법생활 등 정치와 국제현상에 관한 기본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정치교육내용으로 정치권력, 정치형태, 정치과정, 정치문화, 정치발전, 국제정치, 한국정치의 특수성 등 7개의 기본개념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부영역을 나눔으로써 정치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과학의 제 개념을 축으로 한다. 정치영역에서는 윤용탁이 제시한 8개의 기본영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7개의 정치교육내용에서 민주주의, 정치형태, 정치발전 부분이 주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찾아내어 정치영역에서의 분석준거를 체계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과정 중 중복되는 것 외에도 교과서에서는 드러나 있으나 준거로서 체계화 되지 않았던 '세계시민의식'을 정치영역에 새로운 틀로 엮어 완성도를 높였다.

다음은 미국관련 분야 경제영역은 미국사회과 교육협의회와 미국 경제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경제협의회는 Economics America : Teaching Strategies ; Economics What and When : Scope and Sequence Guidelines (1993)을 통해 경제교육의 기본개념을 22가지 선정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1997)에서 다 20개의 내용기준을 4, 8, 12학년으로 나누어 중복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구성하였다(김영용, 2000: 재인용). 이 단계별 내용구성을 보면 기본개념,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로 나누어 세분화 하였는데 그 중 한국교과서 내의 미국경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제경제의 분야에서 미국경제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경제성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드러나 있으나 이 분석틀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경제영역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틀 경제성장부분에 설정하였다.

국제이해교육을 주장한 학자들은 Kniep(1986), 유네스코(1991), 전숙자·이인표 등 여러 학자와 기관이 있는데 그 내용 또는 목표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았다(최문주, 재인용; 전숙자, 1998). 유네스코(1991)와 전숙자·이인표는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타국에 대한 연구,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 정치, 생명과학,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연구 등으로 주제와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자 분석하려는 사회문화와 국제영역에서의 주요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어서 서술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본 분석틀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의 내용과 주제를 정리하여, 미국관련 분야를 볼 때 사회문화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 개념을 설명함과 동시에 국제영역의 분석틀까지 위의 이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소주제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정하였다. (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 1995: pp21-22)

위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중복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 등 4개 영역을 주제로 하는 표를 만들고 다루어야 할 소주제를 선정하였고,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관련 내용 중에서 미국관련 서술 분석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 다음의 3가지 분석 준거를 구성하였다.

첫째, 정치교과서 미국관련 내용 중에서 '미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관련서술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미국과 관련된 서술은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미국에 대해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정치교과서에서 미국관련 서술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 영역 전반적으로 그 비율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성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중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출판사별로 미국관련 내용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 영역에 따라 교과서 4종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교과서 미국관련 부분에 나타난 미국관련 서술구분이 가능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을 제안하였다

위의 준거들을 기준으로 분석틀을 만들었다. 개발된 비교 분석틀은 전공교수와 논문지도교수에게 서술유형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아 보완하고 수정했다.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된 서술 유형 구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치교과서 미국관련 부분 각 영역의 유형별 비중도[5]를 산출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 영역에서 서술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 표 2>.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미국 관련 서술유형 분석 준거

5) 비중도(%) = 각 세부내용의 문장의 수 / 전체 상대관련 문장의 수 × 100
(단,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1. 정치	1-1. 민주주의	1-1-1. 기본원리
		1-1-2. 역사적 전개과정
		1-1-3. 정치적 이데올로기
	1-2. 정치형태	1-2-1. 정부형태
	1-3. 정치발전	1-3-1. 정당과 이익집단
		1-3-2. 여론과 언론
		1-3-3. 세계시민의식
2. 경제	2-1. 비교우위	2-1-1. 개발도상국문제
		2-1-2. 원조
	2-2. 국제수지	2-2-1. 성장과 자연보호의 균형
		2-2-2. 성장 불균형의 무역마찰
	2-3. 경제성장	2-3-1. 과학기술의 발달
3. 문화	3-1. 문화의 다양성	3-1-1. 문화특성
		3-1-2. 문화상대주의
	3-2. 문화교류	3-2-1. 외래문화 갈등에 대한 이해
		3-2-3. 문화의 세계화
4. 국제	4-1. 국제관계특징	4-1-1. 양극화
		4-1-2. 다극화
	4-2. 국제정치와 외교	4-2-1. 평화
		4-2-2. 안보
		4-2-3. 국제기구
	4-3. 한미관계의 특수성	4-3-1. 분단상황
총문장수		

2) 각 교과서의 미국관련 서술내용 분석의 예

네 가지 영역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 영역의 각각의 미국관련 서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서술문장을 기준으로 교과서 상에서 각 영역별로 비중있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①정치영역

정치 영역은 크게 민주주의, 정치형태, 정치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예시에서는 소주제를 중심개념으로 더 세분화 시켜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원리, 정치형태에서는 정부형태, 그리고 정치발전에서는 여론과 언론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 속하는 교과서 서술 내용의 예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C(대한교과서)에서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교과서예시
1. 정치	1-1. 민주주의	1-1-1. 기본원리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회계약설에 기초하여 잘못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정치교과서, 대한교과서, p.43)
	1-2. 정치형태	1-2-1. 정부형태	-1787년 선포된 미국 헌법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최고 재판소로 구성된 사법부로 연방 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였다. (정치교과서, 대한교과서, p.52)
	1-3. 정치발전	1-3-2. 여론과 언론	-당시 미국가정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이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교과서, 대한교과서, p.117)

②경제영역

경제영역은 크게 비교우위, 국제수지,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나뉠 수 있다. 비교우위 부분에서 원조문제, 국제수지 부분에서는 성장 불균형의 무역 마찰로 세분화 하여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교과서 A(지학사)에서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교과서예시
2. 경제	2-1. 비교우위	2-1-2. 원조	-...국제연합 개발 계획과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실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난민을 돌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정치교과서, 대한교과서, p197)
	2-2. 국제수지	2-2-2. 성장 불균형의 무역마찰	-미국의 기술력 발전에는 한계가 있으며, 제 3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의 불균형은 커다란 약점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과 중국의 거센 도전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비정부 기구들의 연대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이 독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정치교과서, 지학사, p177)
	2-3. 경제성장	2-3-1. 과학기술의 발달	-미국은 과학, 기술, 특히 첨단정보산업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권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지식 기반 산업은 미국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장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전히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정치교과서, 지학사, p177)

③문화 영역

사회문화영역은 크게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교류로 나뉠 수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 영역에서는 문화특성으로, 문화교류의부분에서는 외래문화 갈등에 대한 이해를 예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과서 D(천재교육)에서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교과서예시
3. 사회	3-1. 문화의 다양성	3-1-1. 문화특성	

문화			- 헌팅턴은 세계 문명을 서구 기독교 문명, 그리스정교문명, 이슬람 문명, 아프리카 문명, 인도의 힌두 문명, 일본문명, 유교문명 등 일곱으로 나눈다. (정치교과서, 법문사, p194)
	3-2. 문화교류	3-2-1. 외래문화 갈등에 대한 이해	-많은 인기를 얻던 국산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급히 막을 내린 예도 많다. (정치교과서, 천재교육, p.227)

④국제영역

국제영역은 크게 국제관계특징과 국제정치와 외교, 그리고 한국정치의 특수성으로 분류하였다. 국제영역의 미국관련 서술 예시로는 국제관계특징의 중심개념 중, 양극화의 서술을 대표예시로 넣었고 국제정치와 외교부분에서는 안보를, 그리고 한국정치의 특수성에서는 분단상황을 예시로 서술해 보았다.

교과서 B(법문사)에서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교과서 예시
4. 국제	4-1. 국제관계특징	4-1-1. 양극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형성되었던 냉전체제는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적 양극 체제였다. (정치교과서, 법문사, p.191)
	4-2. 국제정치와 외교	4-2-2. 안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같은 국가 간의 조약, 국제 연합 헌장과 같은 국제 협약등이 있다. (정치교과서, 법문사, p.179)
	4-3. 한미관계의 특수성	4-3-1. 분단상황	-양극 체제 하의 이데올로기적 냉전 시대에 우리나라의 외교는 주로 자유 진영국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치교과서, 법문사, p.203)

3) 미국 관련 자료의 분석

①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영역 따른 유형 분석

분석 대상 교과서를 <표 2>. 에서 제시한 영역의 유형에 따라 미국관련 서술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래의 표의 형식에 따라 검토해 보았다.

<표 3>.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 영역에 관한 미국관련 서술 유형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문장	총문장	소계 (수)
1. 정치	1-1. 민주주의	1-1-1. 기본원리			
		1-1-2. 역사적 전개과정			
		1-1-3. 정치적 이데올로기			
	1-2. 정치형태	1-2-1. 정부형태			
	1-3. 정치발전	1-3-1. 정당과 이익집단			
		1-3-2. 여론과 언론			
		1-3-3. 세계시민의식			
	소계				
2. 경제	2-1. 비교우위	2-1-1. 개발도상국문제			
		2-1-2. 원조			
	2-2. 국제수지	2-2-1. 성장과 자연보호의 균형			
		2-2-2. 성장 불균형의 무역마찰			
	2-3. 경제성장	2-3-1. 과학기술의 발전			
	소계				
3. 문화	3-1. 문화의 다양성	3-1-1. 문화특성			
		3-1-2. 문화상대주의			
	3-2. 문화교류	3-2-1. 외래문화 갈등에 대한 이해			
		3-2-2. 문화의 세계화			
	소계				
4. 국제	4-1. 국제관계특징	4-1-1. 양극화			
		4-1-2. 다극화			
	4-2. 국제정치와 외교	4-2-1. 평화			
		4-2-2. 안보			
		4-2-3. 국제기구			
	4-3. 한미관계 특수성	4-3-1. 분단상황			
	소계				
총문장수					

Ⅳ. 주요 결과 및 논의

1. 출판사별 분석가능 한 미국자료의 비중

먼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치교과서에서 미국관련 자료의 수와 미국관련 내용 서술구분이 가능한 자료의 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관련 구분 가능한 자료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4 >. 출판사별 분석가능 한 미국관련 자료의 수

출판사	미국관련 자료의 수	미국관련 구분 가능한 문장자료의 수	비중(%)
A	93	81	87%
B	133	107	80%
C	92	54	58%
D	115	96	83%
소계	433	338	78%

<표 6>. 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교과서의 미국관련 자료의 수를 출판사별로 보면, B 교과서 > D 교과서 > A 교과서 > C 교과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B 교과서가 133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C 교과서가 92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C 교과서는 B 교과서와 비교분석 해 볼 때 그 숫자가 40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국관련 자료의 수는 출판사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을 살펴보면, A 교과서의 미국관련 구분 가능한 자료의 수가 87%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비율의 C 교과서와 29% 정도의 차이를 보여 비율역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C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나타난 미국 관련 자료 중 미국관련 서술구분이 가능한 문장은 전체의 80%정도인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미래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미국관련 부분 구분 가능한 자료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 전반적인 분야가 균형있게 서술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내용 비중 분석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제 7차 정치교과서 4종을 분석한 결과 미국관련 서술내용 구분이 가능한 자료는 433개의 미국관련 내용 중 모두 338개로, 전체 정치활동 자료 중 78%를 차지했다. 433개에서 338개의 자료로 압축시키게 된 까닭은 탐구활동, 도표, 그래프, 삽화 등 그 의미가 부정확한 것이나 미국이라는 확실한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은 제외하였으므로 그 분석할 자료수가 압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미국관련 서술구분이 가능한 338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 2>. 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 영역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5 >.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서술내용의 비율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문장수	비율
1. 정치 (38.7%)	1-1. 민주주의 (14.5%)	1-1-1. 기본원리	19	5.6%
		1-1-2. 역사적 전개과정	27	8.0%
		1-1-3. 정치적 이데올로기	3	0.9%
	1-2. 정치형태 (7.7%)	1-2-1. 정부형태	26	7.7%
	1-3. 정치발전 (16.5%)	1-3-1. 정당과 이익집단	25	7.4%
		1-3-2. 여론과 언론	19	5.6%
		1-3-3. 세계시민의식	12	3.5%
소계			**131**	**38.7%**
2. 경제 (9.5%)	2-1. 비교우위 (2.4%)	2-1-1. 개발도상국문제	3	0.9%
		2-1-2. 원조	5	1.5%
	2-2. 국제수지 (4.2%)	2-2-1. 성장과 자연보호의 균형	9	2.7%
		2-2-2. 성장 불균형의 무역마찰	5	1.5%
	2-3. 경제성장 (2.9%)	2-3-1. 과학기술의 발전	10	2.9%
소계			**32**	**9.5%**
3. 문화 (4.1%)	3-1. 문화의 다양성 (2.1%)	3-1-1. 문화특성	6	1.7%
		3-1-2. 문화상대주의	1	0.4%
	3-2. 문화교류 (2.0%)	3-2-1. 외래문화 갈등에 대한 이해	2	0.6%
		3-2-2. 문화의 세계화	5	1.4%
소계			**14**	**4.1%**
4. 국제 (47.6%)	4-1. 국제관계특징 (7.6%)	4-1-1. 양극화	14	4.1%
		4-1-2. 다극화	12	3.5%
	4-2. 국제정치와 외교 (32%)	4-2-1. 평화	33	9.8%
		4-2-2. 안보	42	12.4%
		4-2-3. 국제기구	33	9.8%
	4-3. 한국정치 특수성 (8%)	4-3-1. 분단상황	27	8.0%
소계			**161**	**47.6%**
총문장수			**338**	**100%**

정치교과서에서 미국관련 내용을 정치, 경제, 문화, 국제영역의 4개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정치교과서에서 정치 영역이 아닌 국제 영역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4개의 유형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국제 영역에서는 세분화 시킨 개념, 국제정치와 외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는 미국관련

내용 서술을 할 때 미국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부형태 보다 국제부분 특히, 외교에 비중을 더 높게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제 영역에서 한국정치의 특수성인 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 관련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미국관련 부분이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제 영역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정치영역 역시 정치교과서에서는 미국관련 부분의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미국 정치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그 비율이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치발전 부분에서 여론과 언론의 비율이 역사적 전개과정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한 문장 정도 서술되어 있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는 미국관련 서술이 매우 저조했다. 이러한 학습은 현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며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괴리감 있는 의식이 함양될 것이다. 즉, 이러한 의식함양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외국관을 형성시키는 교육이 행해 질 때 실제사회와의 괴리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 영역에 걸친 균형있는 교육은 필요하다.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미국관련 내용 서술뿐 만 아니라 삽화나 탐구활동, 그리고 참여 학습 까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루어져야 한다.

1) 정치영역분석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미국관련 내용 서술 중 <정치> 영역의 비율은 총 338개의 문장에서 38.7%(131문장) 로 나타났다.

정치영역 내용 특징은 민주주의와 정치형태 그리고 정치 발전으로 소주제를 정하고 다시 중심개념으로 세분화 시켜 비율 분석을 실시했다. 정치 영역에서 정치발전 부분이 16.5%(56문장) 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민주주의 14.5%(49문장), 정치형태가 7.7%(26문장)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민주주의라 함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이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만을 의미하였으나 16세기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와야 하고,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할 때는 새로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만인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했다. 1787년 제정된 미국의 헌법은 인류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였으며 자유민주제도를 성문화하였다. 미국은 근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출발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미국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로 정치유형에서 미국을 볼 때 가장먼저 인식해야 할 중요한 분야임이 틀림없다.

민주주의 중심개념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세분화 시켜 분석하였다.

세분화 시킨 중심영역은 역사적전개과정이 8.0%(27문장) 로 가장 그 내용이 많이 서술되어 있었고, 기본원리가 5.6%(19문장),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0.9%(3문장) 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같은 정치영역이더라도 가장 많은 비율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영역	소 주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1.정치	1-1. 민주주의	1-1-1. 기본원리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 중 민주주의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구이다.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 p25)
		1-1-2. 역사적 전개과정	이러한 여성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1893년에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하였고,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서 나라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

			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정치 천재교육 p46)
		1-1-3. 정치적 이데올로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되어 정치, 이념, 군사, 경제적으로 대립하였다.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 p181)

(2) 정치형태

정치형태의 영역은 미국의 정부형태로 크게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초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정치형태에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 영국은 입헌군주제에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국가의 상징인 군주가 존재하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시점에 자신들 국가의 상징으로 군주를 내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공화제를 기본으로 하여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정부형태를 만들어 낸다.

즉, 미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元首)이며 군(軍)의 최고사령관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내각을 통솔하며, 내각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의회로부터 가능한 한 분리되어 있다. 대통령은 입헌군주제에서의 국가대표인 국왕을 공화제라는 환경에서 대비되도록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공화제랑 밀접하게 결합하며, 일반적으로 국왕이 존재할 수 없는 정치형태이다.

한국역시 미국 정치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제를 답습하는 정치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치영역을 학습할 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정부의 형태를 이해하고 기능을 고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정치형태분야에 나타난 정부형태의 비율을 살펴보면 7.7% (26문장) 로 정치영역에서는 가장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제 7차 정치교과서
1. 정치	1-2. 정치형태	1-2-1. 정부형태	미국의 대통령제는 강력한 통치권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력의 집중화를 막으려는 사법권 우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는 통치자를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된 왕이라고도 한다. (고등학교 정치 천재교육 p56)

(3)정치발전

예전의 정치발전은 법률의 보편화 되는 것, 정치적 지향이나 태도가 종교성이나 신성화된 전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입헌주의를 확립하는 것을 뜻했다. 전통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이 비정상적 권위에서 나오기도 하였는데 국민들은 그러한 사회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정치에서의 주체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발전이라 함은 정치체계의 능력증대, 물적 ·인적 ·문화적 자원을 조달 ·배분하는 능력을 말하며, 경제력과 문화수준 등의 고도화를 뜻한다. (G.A.알몬드) 발전된 사회에서는 규칙도 권력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밟아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현상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국민에게도 판단기준이 주어져 전면적으로 전통에 지배되는 일 없이 스스로 정치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자신을 정치과정에 참가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정치발전은 시민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여 주인으로서 행사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와 문화까지 함께 고려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치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정치발전영역으로는 정당과 이익집단, 여론과 언론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으로 세분

화시켜 분석하였다. 정치발전 분야는 16.5% (56문장) 로 정치영역에서 그 문장수와 비율이 다른 두 분야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중 세분화 된 중심개념에서 정당과 이익집단이 7.4% (25문장) 로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여론과 언론이 5.6% (19문장),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의식이 3.5% (12문장) 로 분석되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1. 정치	1-3. 정치발전	1-3-1. 정당과 이익집단	미국인들 사이에 이익집단의 로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 매체의 여론 조사세 의하면 미국 시민의 70% 정도는 의원들이 특정 이익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로비 업체가 의회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p94)
		1-3-2. 여론과 언론	1987년 4월 8일자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민 5명 중 한명은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삭제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하였다. 언론이 국민에게 이처럼 불신받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은 미국 최대의 기자 조직인 저널리스트 협회는 즉각 신문, 방송에 의견 광고를 내고 대대적인 '언론 자유 옹호 캠페인'을 벌였다.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p108)
		1-3-3. 세계시민의식	1965년 미국 남부의 한 작은 농장에서 시작된 '해비타트(Habitat)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은 전 세계로 퍼

			져나가 현재 79개국에서 10만 가구가 넘는 집이 지어졌다.....특히 2001년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사랑의 집짓기 자원 봉사에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갖기도 했다. (고등학교 정치 천재교육 p104)

2) 경제영역분석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미국관련 내용 서술 중 <경제> 영역의 비율은 총 338문장 중에서 9.5%(32문장) 로의 비율로 나타났다.

경제영역 내용 특징은 미국사회과 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틀을 기준으로 비교우위와 국제수지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소주제를 정하고 다시 중심개념으로 세분화 시켜 비율 분석을 실시했다. 경제 영역에서 국제수지부분이 4.2%(14문장)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성장이 2.9%(10문장), 비교우위가 2.4%(8문장)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교우위

비교우위란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규명해 낸 무역이론에 나오는 용어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칠레에서 자동차와 라디오를 생산한다고 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일하면 자동차 10대 또는 라디오 10개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칠레에서는 각각 자동차 3대 또는 라디오 6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동일한 노동으로 더 많이 생산하므로 자동차와 라디오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이 생기게 되고 자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론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오늘날 비교우위의 이론이 반드시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의 경제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이 등장하고 상품의 다양화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가 되면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경제에 국경이 없어지고 그로인해 생기는 무역마찰이나 독점 등은 글로벌정부가 투입되어 세계정부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 경제의 선진국인 미국이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화 속에 오늘날 비교우위의 분석이라 함은 자국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 문제까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미국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함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비교우위를 세분화 할 때 개발도상국문제와 원조문제에 그 필요성을 두고 양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관련 서술문장 중 개발도상국문제는 0.9% (3문장) 로 나타났고 원조문제는 1.5% (5문장)로 분석되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2. 경제	2-1. 비교우위	2-1-1. 개발도상국문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고자 10년 이상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나라의 빚을 탕감해 주자는 이 캠페인은 유럽, 미국 등 45개 국가의 비정부 기구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고등학교 정치, 천재교육 p.213)
		2-1-2. 원조	미국은 소련의 팽창정책을 억제하고 서방세계를 공산화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트루먼 독트린, 마셜플랜 등의 봉쇄정책을 취하였다.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p178)

(2) 국제수지

국제수지란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 돈을 지불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상품 수출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잃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즉, 무역이라는 의미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제수지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무역은 각국의 이익을 창출하기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무역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 그 국가는 고립상태의 머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글로벌 시대의 무역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도 연결되어있는 주요 쟁점이다.

무역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경제적 문제들을 국제수지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강대국인 미국의 국제수지 문제를 알아볼 수 있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외의 달러 소유를 늘려 국제유동성을 활발하게 하는데 이는 동시에 달러의 신용을 동요시키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국제수지 적자 해소에 나서서 균형을 회복하면 이번에는 타국에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어 세계 전체로서는 국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유동성 딜레마[6]라고 한다.

이렇듯 무역마찰과 무역균형의 시각에서 역시, 미국의 영향은 막대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성장과 자연보호의 균형, 성장 불균형의 무역마찰로 국제수지 문제를 2가지로 세분화 하여 분석틀에 맞추어 비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장과 자연보호의 균형은 2.7% (9문장), 성장 불균형의 무역마찰은 1.5% (5문장) 로 각각 분석되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6) 희망의 섬을 향한 개혁 (2002). 진노 나오히코. 다산출판사

2. 경제	2-2. 국제수지	2-2-1. 성장과 자연보호의 균형	미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나라들 대부분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등을 철회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이 스웨덴과 독일은 미국에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다. 일본의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 p207)
		2-2-2. 성장 불균형의 무역마찰	1920년대 말에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공황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는 또 다시 혼란을 겪게 되었다.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p159)

(3) 경제성장

경제성장이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전체의 소득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세계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과제 중 하나 일 것이다. 경제발전이 곧 국가번영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는 정치와 깊은 관계에 놓여있는데 경제 발전은 곧 정치 발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직접 참여와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자발적인 서민 기구들이 등장하면서 민간의 권력 감시 기능도 높아지게 된다.

이런 기능들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 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의 양도 실로 방대하게 습득해야 한다. 이에 브루스빔버[7]는 기술의 발전

7) 인터넷시대 정치권력의 변동 (2007). 브루스 빔버. 삼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정치학과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자 정보기술과 사회 연구센터(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ety) 소장. MIT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1992)를 받

에 따라 정보가 분배되는 방식과 비용이 달라지고, 정보 주체의 폭도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정보 기술이 변하면 정보의 비용, 유통, 분배 구조, 다시 말해 의사소통 방식이 바뀌는 셈이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제도와 정치 과정이 과학기술의 정보혁명에 따른 새로운 의사소통구조에 적응하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치발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핵심이 된다.

그리하여 경제성장 부분은 크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분야로 보고 이 부분을 분석하였다. 미국관련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2.9% (10문장)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2. 경제	2-3. 경제성장	2-3-1. 과학기술의 발전	미국은 과학, 기술, 특히 첨단 정보 산업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권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지식 기반 산업은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가장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전히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p177)

3) 문화영역 분석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미국관련 내용 서술 중 <문화> 영역의 비율은 총 338문장 중에서 4.1%(14문장) 로의 비율로 나타났다.

았으며, 캘리포니아대 나노기술센터 운영위원을 맡은 바도 있는 등 과학·정보기술 분야의 경력을 갖춘 이색적인 정치학자. 지금까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치조직, 집단행동, 사회자본, 정치적 숙의 등 인간행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하며 기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많은 저술과 논문을 발표해왔다.

문화영역은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영역 네 가지 중 가장 작은 수치로 분석되었다.

문화영역 분석틀의 특징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국제이해교육을 기준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교류로 소주제를 정하고 다시 중심개념으로 세분화 하여 비율 분석을 실시했다.

문화영역에서 문화의 다양성 2.1%(7문장)로, 그리고 문화교류역시 2.0%(7문장)로 세분화 한 두 분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다양성

2001년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을 선언한다. 문화다양성 선언을 기초로 문화적 재화가 갖는 독특한 성격을 인정해 문화상품을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협약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정식 명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다.

2001.10.15~11.3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164개 회원국들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진흥이야말로 이러한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예로 할리우드 영화 등 최대 문화상품 수출국인 미국은 지난 1985년 '사무국 운영이 방만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탈퇴했다가 2003년 9월 재가입 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문화다양성협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관한 투표에서 반대표를 냈다.

막강한 문화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문화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관철하지 않는다. 그 이

유는 문화가 가지고 오는 막대한 이윤이 자국의 경제,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미국관련 내용을 볼 때 문화의 다양성을 주제로 하여 문화특성과 문화상대주의로 세분화 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문화특성은 1.7% (6문장)로 나타났고, 문화상대주의는 0.4% (1문장)로의 비율로 분석되어졌다. 많은 서술문장 중에 단 1개의 문장이라는 작은 수치는 문화상대주의에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3. 문화	3-1. 문화의 다양성	3-1-1. 문화특성	정치문화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나라는 미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것을 보고 그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정치 문화라는 개념을 생각해 낸 것이다.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p238)
		3-1-2. 문화상대주의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범선에는 백색등을 달지 않는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여 미국 범선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p179)

(2) 문화교류

문화다양성 협약이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공식 채택되었다. 협약은 154개국이 참가한 투표에서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호주,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결과로 통과되었다. 문화상품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고, 각국이 문화정책을 수립할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문화 약소국에 대한 지원도 명시하고 있다.[8] 따라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와 같은 자국 문화상품 보호제도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거대 문화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 국가와 문화교류 시 문화다양성 협약이 자국의 이익에 영양가 없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국과 관련된 문화교류 영역을 분석 할 때 외래문화 갈등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세계화로 세분화 하여 비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의 세계화는 1.4% (5문장) 로 나타났고, 외래문화 갈등에 대한 이해에서는 0.6% (2문장)에 불과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3. 문화	3-2. 문화교류	3-2-1. 외래문화 갈등에 대한 이해	....이슬람의 인구가 증가하고 아시아의 경제가 계속하여 성장한다면, 서구 문명과 서구에 도전하는 문명사이의 갈등은 세계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알 것이다.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p238)
		3-2-2. 문화의 세계와	또 문화도 세계화 되면서 미국 영화가 제작된 지 얼마 안되어 우리에게 소개되는가 하면,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패션이 선보였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p224)

8) 연합뉴스 (2007. 10. 27 일자).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교통상부의 기만적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비준처리를 강력 비판하며.

4) 국제영역 분석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미국관련 내용 서술 중 <국제> 영역의 비율은 총 338문장 중에서 47.6%(161문장) 로의 비율로 나타났다.

국제영역은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영역 네 가지 중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국제영역 분석틀의 특징은 문화영역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국제이해교육 기준을 기본으로 하였다. 국제영역에서는 국제관계의 특징, 국제정치와 외교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의 특수성으로 분석틀을 정하고 다시 각 영역의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세분화 하여 비율 분석을 실시했다.

국제영역에서 국제관계의 특징이 7.6%(26문장), 국제정치와 외교 32%(108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의 특수성이 8.0% (27문장)로 분석 비율이 나타났다. 국제영역에서는 국제정치와 외교가 32% 분석결과가 나타나 다른 두 분야보다 미국관련 서술내용에서 그 수치가 무려 3배정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두 분야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관계의 특징

국제관계의 정의를 내리자면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또는 주요 세력 간의 정형화된 상호관계라 볼 수 있다. 흔히 국제관계의 핵심이 정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관계가 국제정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정치가 주로 정치적 ·공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비해 국제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종합적인 개념인 것이다.

근대 이전의 국제관계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였지만, 오늘날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세계적인 국제관계로 변화되었다. 즉, 모든 국가와 민족은 국제관계의 틀과 작동메커니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관계는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서방진영과 공산진영의 양극체제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력 약화와 함께 일본과 독일이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양극체제는 다극화의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극체제 안에서의 다극화현상은 1980년대 말 동구사회주의의 붕괴와 소련의 몰락 등

으로 냉전체제의 한 축이 사라지면서 경제력 중심의 다극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의 다극체제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관련 내용을 볼 때 국제관계의 특징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양극화와 다극화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양극화는 4.1% (14문장) 이 분석되었고, 다극화는 3.5% (12문장) 로 분석되어 나타났으므로 두 분야는 그 서술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4. 국제	4-1. 국제관계의 특징	4-1-1. 양극화	냉정체제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운데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고 미국과 구소련을 각 진영의 정점으로 하여 세계 각지에서 팽팽한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였다. (정치 교과서, 천재교육 p205)
		4-1-2. 다극화	냉전체제하에서 대립하던 세계는 제 3세계의 등장,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으로 인해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89년에 미국과 소련이 몰타선언을 발표한 후, 독일이 통일(1990)되고 소련이 붕괴(1991)됨으로써 냉전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정치 교과서, 지학사 p159)

(2) 국제정치와 외교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하여 국가 간에 맺는 일체의 대외관계를 외교라고 한다. 개별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오늘날 '외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외교가 생명인 나라이다. 지구상에서 힘이 가장 막강

한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고, 민족은 분단되어 있다. 또한 자연자원이 없어 경제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독특한 지정학적인 제약, 자연환경상의 악조건 가운데 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온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와 뗄 수 없는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교육 등 대한민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동북아의 세력유지에 지원을 해 줬으며, 남북이 대치하고 중국이 커져감에 따라서 위협적인 세력을 방어해 준 것 역시 사실이다. 동맹체제아래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교에 우선순위를 달아 놓는다면 미국은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정치교과서 내 미국관련 서술내용을 분석 할 때 국제정치와 외교 영역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3개의 중심개념을 만들었다. 평화, 안보, 국제기구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 그 중 안보가 12.4% (42문장) 로 가장 서술비율이 높았고, 평화와 국제기구 두 분야는 9.8% (33문장) 로 그 비율과 문장수가 일치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4. 국제	4-2. 국제정치와 외교	4-2-1. 평화	그러나 구소련이 스탈린 사후 등장한 후루시초프에 의해 수정주의로 돌아서면서 서서히 극한적인 대립 양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의 부담에 시달린 미국도 닉슨의 괌 선언(닉슨독트린)으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정치 교과서 천재교육 p205)
		4-2-2. 안보	1962년 10월 미국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치할 핵무기를 선박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신속하고 단

			호하게 대처하였다.....결국, 소련이 선박을 회항시키고 미사일 기지 건설을 포기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의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성은 사라졌다. (고등 정치교과서 지학사 p.199)
		4-2-3. 국제기구	그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미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연합 교육 과한 문화 기구(UNESCO) 등 각종 국제연합 전문 기구에서 탈퇴하였고 자국이 내는 유엔 분담금도 삭감하였다. (고등 정치교과서 법문사 p188)

(3) 한미관계의 특수성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후 대두된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세계의 양극화 현상, 동서세력간의 분단과 대립이 낳은 "냉전"이라는 갈등구조 속에서 배태된 전쟁이었다. 최초 남한과 북한, 동족간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당시 이념을 달리하던 양대 세력의 개입으로 비록 전장은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국제적 규모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한반도, 독일, 중국, 예멘, 베트남이 분단국가로 되었으나, 베트남 (1975), 독일(1990), 예멘(1991)이 정치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지구상에는 한반도와 중국만이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치라 함은 우선 분단국가임을 사전에 암시해 두고 그 정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서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에 대부분 결정을 내려 왔으며 지금도 남북한 관계에 많은 개입을 하고 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정치의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세분화 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분단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미국관련

서술 문장 중 8.0% (27문장) 의 비율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용 영역	소 주 제	중심개념	7차 정치교과서
4. 국제	4-3. 한미관계의 특수성	4-3-1. 분단상황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은 38선이 그려진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려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구소련과의 주도권 다툼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구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할 의도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군사 분계선으로 북위 38도선을 확정하고 이를 구소련에 제의하였다. 그리고 구소련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38도선을 경계로 미, 소 양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의 남과 북에 각각 주둔하게 되었고 민족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고등 정치교과서 천재교육 p.265)

3. 출판사별 미국관련 서술 비중 분석

정치교과서 미국관련 서술 내용 중 구분이 가능한 미국관련 자료는 교과서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치, 경제, 문화, 국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8>.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치, 경제, 문화, 국제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문화부분에서 문화의 다양성, 문화교류 모두에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의 다양성의 경우, B 교과서에서 1.2%, 네 문장이 서술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C와 D 교과서에서 각각 한 문장 씩 나타났으며 A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문화 상대주의 역시 B 교과서에서만 한 문장이 서술되어 있을 뿐 다른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 교류 측면에서도 세분화 시킨 문화의 세계화에서 C와 D 교과서에서 두 문장 씩 서술되어 있을 뿐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거의 전무(無) 하였다.

정치 유형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원리, 역사적 전개과정,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세분화 시켜서 보았는데 기본원리와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A 교과서 2.1%,

B 교과서 1.8%, C 교과서 2.4%, D 교과서 1.8% 등, 미국관련 서술유형이 고르게 분포 되어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서술한 자료는 A 교과서 2문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정치형태에서는 A, B, D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C 교과서만 0.9%로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정치발전에서는 비율이 B와 D 교과서가 6.5% 정도의 비율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A 교과서와 C 교과서는 각7문장(2.1%)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경제 유형에서는 문화영역만큼 비슷한 비율의 저조한 수치가 나타났다. 비교우위에 있어서 D교과서가 1.2%, 4문장의 서술을 제외하고는 A, B, C 교과서가 거의 서술을 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국제수지에서는 A 교과서 0.9%, B 교과서 1.2%, C 교과서 1.2%, D 교과서 0.9% 등으로 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경제성장의 과학기술 발달에서 A 교과서가 1.8%, 6문장으로 유일하게 높게 서술되었고, 0.9%의 비교적 적은 수치를 보인 B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과서는 관련내용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형에서는 네 개의 교과서가 미국에 관해서 가장 많이 서술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우선 국제관계의 특징에서 B 교과서가 3.5%로 양극화, 다극화에 관하여 가장 많이 서술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 A 교과서가 9문장 2.7%, D 교과서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 교과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국제정치와 외교에서는 평화, 안보, 국제기구로 세분화 시켰는데 4개 교과서 전부, 타 내용분석보다 많은 비율 분포를 나타냈다. B 교과서가 12.1%, D 교과서가 8.6%, A 교과서가 7.4%, C 교과서가 3.5% 순으로 국제정치와 외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치의 특수성에서는 D 교과서가 10 문장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와 C 교과서는 2.1% 그 비율이 같았고, B 교과서만 0.9% 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미국관련 서술 구분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교과서 4종을 정치, 경제, 문화, 국제의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종 교과서 모두에서 미국관련 서술구분이 가능한 자료는 A 교과서 24%, B 교과서 31.6%, C 교과서 16%, D 교과서 28.4%로 나타났다. A, B, D 교과서에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가장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C 교과서는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B 교과서와 거의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는 B 교과서가 12.4%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 영역에서는 A 교과서가 3.2%,

문화 영역에서 B 교과서가 2.1%로 높게 분석 되었으며 국제영역에서도 B 교과서가 16.6%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위의 분석을 근거로 출판사별 미국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A, B, C, D 교과서에 나타난 비율을 포괄적으로 볼 때 4개의 유형 중 정치영역 비율이 40.2%, 경제영역은 9.5%, 문화영역은 4.1%, 국제영역은 48% 정도 비율로 나타나 정치교과서에서는 정치영역과 국제영역을 제외하고는 경제와 문화영역에서는 미국관련 서술내용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A교과서에서는 문화영역이 하나도 없었고, 국제영역에 거의 편중되어 있었다. B교과서에서는 정치와, 국제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서술되어있었지만 경제와 문화는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았으며, C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미국관련 서술비율이 타교과서 보다 월등히 적었다. 마지막으로 D교과서는 B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국제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경제와 문화는 서술이 빈약했다.

이와 같은 결론이 4종 교과서에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느 출판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외국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심어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교과서 마다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편중성을 극복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서술하는 등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표 6 >. 출판사별 미국관련 내용 비율

(단위: 백분율(%), 표에 나타난 %는 미국관련 비율을 말함, ( )는 수)

내용 영역	소 주 제	A	B	C	D	소계
1. 정치	1-1. 민주주의	8.6(29)	12.4 (42)	7.1 (24)	12.1 (41)	40.2 (136)
	1-2. 정치형태					
	1-3. 정치발전					
	소계					
2. 경제	2-1. 비교우위	3.2(11)	2.1(7)	1.8(6)	2.4(8)	9.5 (32)
	2-2. 국제수지					
	2-3. 경제성장					
	소계					

3. 문화	3-1. 문화의 다양성	0(0)	2.1(7)	1.2(4)	0.9(3)	4.1 (14)
	3-2. 문화교류					
	소계					
4. 국제	4-1. 국제관계특징	12.1 (41)	16.6 (56)	5.9 (20)	13.0 (44)	48.0 (161)
	4-2. 국제정치와 외교					
	4-3. 한미관계의 특수성					
	소계					
총문장수		24.0 (81)	31.6 (107)	16.0 (54)	28.4 (96)	100 (338)

Ⅴ.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의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교과서 미국 관련 서술 내용 중, 정치, 경제, 문화, 국제영역으로 분석이 가능한 문장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별 미국관련 자료수와 그 중에서 문장으로서 구분이 가능한 자료수를 조사하였다.

둘째,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국제로 구분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 4영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338개의 구분 가능한 문장 수에서 국제 영역이 161개의 문장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치영역이 136개의 문장 수를 내포하고 있었고 경제영역 32문장, 문화영역 14문장으로 문장 수와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정치교과서이므로 미국관련 내용 또한 정치 쪽으로 그 내용 치우쳐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제영역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낸 국제영역에서는 국제정치와 외교의 문제가 108문장

32%의 비율로 국제관계의 특징 7.6%, 한국정치의 특수성8.0% 보다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14.5%, 정치형태가 7.7%, 정치발전이 16.5%로 소주제에서는 정치발전 내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세부내용을 분석했을 시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8.0% 비율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외, 경제와 문화에서는 그 자료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함을 보였는데 경제영역에서는 그나마 경제성장의 과학기술의 발전 2.9%, 국제수지에서 성장과 자연보호의 균형이 2.7%로 유일하게 2.0%대의 비율을 유지했고 나머지 영역은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거나 전무했다. 문화영역은 문화의 다양성, 문화 교류 소주제를 전부 통합하여 보아도 4.1%의 비율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서술내용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처럼 정치, 국제 영역에 비해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미국관련 문제에서 경제, 문화는 정치와는 별개라는 편협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영역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교과서 4종 에서 차이점과 공통점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교과서에서는 문화영역이 하나도 없었고, 국제영역에 거의 편중되어 있었으며 B와 D교과서에서는 정치와, 국제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서술되어있었지만 경제와 문화는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C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미국관련 서술비율이 타교과서 보다 월등히 적었다.

또한 공통된 특징으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정치와 국제영역이 주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경제와 문화 영역은 상당히 낮은 비율로 서술되어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든지 간에 미국관련 부분을 공부하고자 할 때 사회문화 전반적인 현상을 폭넓고, 균형있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관한 한 가지 측면에만 치우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 교육의 핵심 영역 중의 하나인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에서 나아가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외국관련 학습영역이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세계 속의 우리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이 외국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나타

날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올바른 외국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서술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바르게 판단된다.

2. 시사점 및 제언

지구촌 시대를 살면서 세계는 하나가 되고 그 속에 많은 민족들이 공존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세계화, 다원화 시대에 어느 한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는 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사고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외국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는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기보다는 친형제와도 같을 정도의 친밀함과 우호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2000년대에는 한국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형태인 반미의 성향도 드러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분야에 눈에 보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 국민 하나하나에게 보이지는 않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뿐만 아닌 경제와 문화의 여러 이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모습이 변화해 감에 따라 국민들의 미국관도 변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교과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고루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청소년들이 외국관을 형성하고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학교교육의 역할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그 중, 학교교육의 핵심이자 주요 매체인 교과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와 국제 부분에만 미국 관련 서술부분이 치우쳐 있고, 현재 국민 개개인에 가장 밀접하게 파고드는 경제나 문화에 대한 서술은 매우 저조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미래의 미국관을 형성해 나갈 때 사회 전반적인 면보다 정치적인 면만 우려하게 됨으로써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고, 미국에 대해 제대로 학습되어 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을 토대로 정치교과서 내의 미국과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정치, 경제, 문화, 국제로 나뉘어 분석을 하였을 때 그 비중이 어느 분야에 치우쳤으며 어느 분야는 저조한지 그 비중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 8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정치교과서에서 미국관련 자료를 어떻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교과서에서 미국관련 서술부분에 대해 제언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균형성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국관련 서술부분이 경제, 문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 교과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며 그 정보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습득할 수 있게끔 서술되어야 한다. 제 7차 정치교과서에서는 미국에 관해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영역에서 서술이 되어 있으나 경제와 문화영역에선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관련 부분을 정치, 경제, 문화, 국제 네 가지 영역에서 있어서 골고루 비중 있게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미국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등을 전혀 다른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는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 정치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제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와 문화 분야까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때문에 미래 우리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관련 경제, 문화적 문제에도 혼란을 갖지 않고 대비 할 수 있도록 교과서 상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배우도록 서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감정적인 분야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서술할 필요성이 있다. 해방 후 과거 몇 십년간 미국은 한국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미국은 교육에 있어서 홍익인간이란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미군정으로 하여금 각 과목 및 수업을 통제하는 교수요목 시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과거 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분야가 객관성을 띄고 있기보다는 우호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냉정하지 않은 감정이입의 서술은 미국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할 때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현상과 교과서상의 괴리감은 미래에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관련 분야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우리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미래한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외국관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였는가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힘이 크다. 이는 교육자 뿐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많은 매체들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계를 짊어지고 갈 한국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